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사상 초유 사법 농단 수사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 물꼬를 튼 뒤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두 정상회담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악수와 도보다리 산책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한 달 뒤인 5월 26일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재자'인 문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동창리 연진시험장 영구폐기 등 비핵화 세부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의 이른 시일 내 서울 답방을 명시해 분단 이후 첫 서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오른 장면도 연출했다. 정상회담 성과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으로 현실화했다.

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전직 대법관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5 오너·기업 갑질... 을의 분노 폭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회사 직원에게 폭언하고 물을 뿌린 '물컵 갑질'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침묵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한진 일가의 다른 갑질까지 폭로하고 나섰다. 이후 사태는 한진 일가의 횡령과 배임, 밀수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됐다. 10월에는 국내 웹다에 업계 대부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적인 폭행과 영기행각이 드러나 사회를 들끓게 했다. 양 회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2 문화계·정치권 뒤흔든 '미투'

국내 미투 열풍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이던 서지현 검사가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문화계에서는 최영미 시인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해 충격을 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주목받은 연극인 이윤택 연출은 잇따른 폭로로 구속기소됐다. 영화계에서는 배우 오달수와 조재현, 김기덕 감독에 관한 폭로가 나왔다. 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배우 조민기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미투 충격파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정치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저변에 잠복한 성폭력의 위험과 무관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여론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극단적 여혐(여성혐오)과 남혐(남성혐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6 방탄소년단 인기... 전세계 K팝 열풍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를 K팝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방탄소년단은 9월 초부터 50여 일간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라는 타이틀로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의 6개국 11개 도시에서 총 22차례 공연을 했다. 영국 BBC와 가디언, 프랑스 르피가로 등 유럽 유력 매체들은 '21세기 비틀스이자 팝 센세이션', '서구 음악 산업 최상위권에 도달한 최초의 K팝 그룹', '비틀스를 잇는 밀레니엄 세대 동반자'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은 9월 24일 유엔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담은 연설로 전 세계 관심을 다시 받았다.

7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적폐 수사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의문에서 시작했다. 수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전직 임직원들이 입을 열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결국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5개월가량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법적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에 못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노선서비스를 포함한 특별 제외 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에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에 오간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6월부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행정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10월 말 핵

8 집값 급등에 역대급 대출·세금 규제

올해 서울 주택시장은 '미친 집값'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다. 1~11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8.22%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 (4.69%) 두 배 수준에 달했다. 2006년 23.46% 오른 데는 못 미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집값 오름세는 상승률 수치 이상이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 등 지방 아파트값이 올해 11월까지 평균 2.49%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6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방침 등이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정부는 작년 8·2대책 이후 1년여 만인 9월 9·13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 투기꾼들에게 핏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9 민주당 기록적 압승... 지방권력 재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보수진영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200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당한 완패를 양감음하며 기록적으로 완승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했다.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이 민주당 깃발이 꽂힌 지역이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제주에선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총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겨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을 압도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전국 12곳 지역 중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뺀 11곳에서 모두 이겼다.

10 30년만의 올림픽 평창대회 성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며, 아시아에선 일본 삿포로(1972년)·나기노(1998년)에 이은 세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 개최 경험을 발판 삼아 평화·경제·문화·ICT(정보통신기술)·안전올림픽으로 치러내 찬사를 받았다. 북한의 참가는 한때 위기가감이 감돌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이후 연이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내는 산파 구실을 했다. /연합뉴스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를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